무법자, 착한사람, 아기의 공통점

(골2:19~23)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법자, 착한사람, 아기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같습니까? 무법자와 착한사람 아기의 공통점이.
무법자는 있는 법을 무시하고 살고 있으니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착한사람은 법에 저촉될 일이 없으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아기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행동을 엄마가 대신 해주니까 행동함으로 지켜야 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강요되어지는 법, 원치 않는데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끌어당기는 법이 있잖아요?
즉, 우리가 행하기를 원해서 하는 행동규범, 행동원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법으로서의 행동규범과 규례를 잡아 끌어당깁니까?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게 법이거든요.
근데 성공을 하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규례가 나오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규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행동규범으로 법을 확대시켜보고 질문을 해보면, 신앙인과 아기의 유사점이 뭡니까?

아기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모든 행동을 엄마가 대신해줍니다.
태어나서 법적인 출생신고부터,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자는 것도 자기 스스로 침대에 가서 자지 못하고 업고 안고 자장가를 부르면서 재워야 잡니다.
이렇게 다 엄마가 대신 행동을 해줍니다.
똑같아요, 신앙인도 참 신앙인이라면 아기에게는 행동규범 대신에 엄마가 주어져 있어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인에게는 법이나 율법이나 규례나 행동규범 대신에 하나님이 주어져 계심으로써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유사점이에요.

그러면 불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불신앙인은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가짜 신앙인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불신앙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인이 가짜 신앙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지독하게도 행동규범을 좋아합니다, 규례를 좋아합니다.
교회 밖의 불신앙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행동규범을 좋아하는가 하면, ‘ㅇㅇ하면 성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의 능력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교회 안의 가짜 신앙인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규범을 좋아합니까?
‘ㅇㅇ하면 복 주신다’ 다 가짜 신앙인들이라 그래요.
충성하면…, 봉사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게 다 가짜 신앙인들의 모토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새로운 율법주의의 온상으로 변질 회귀시켜 버립니다.

23절에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자의적 숭배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복은 충성 봉사 헌금 등의 어떠한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의 충성 봉사 헌금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 받았음의 증거입니다.
복 받은 자들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고 헌금 합니다.
근데 온통 교인들을 복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놓고는 복을 향해서 봉사 충성 헌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 자체가 가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라고 할 때의 ‘복’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믿음 하나만 가지면 충분히 받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더 채울래야 채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충분하게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주의가 한 맥락이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이 세상의 복들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관장하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율법을 끌어당기는 거라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될 규범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이다, 어떻게 마음에 건강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경제학, 경영학은 어떻게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문학이다, 어떻게 문학을 통해서 선과 미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은 전부다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행동규범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전부 행동규범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 접근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규범을 좋아하나?
한 번 오늘 서점에 나가보세요,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이 우리에게 행동규범을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될 거라는 얘기에요.
내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 전부 다 그래요.
왜 이 행동규범을 우리는 이렇게 좋아할까요?
또, 반대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규범과 규례를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보일 만큼 거부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점을 알아보는 거예요.

행동규범과 규례, 이게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규범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게 되는 행동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이 행동규범을 끌어들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돈이라든지 높아지는 것 관직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좋다고 여겨져서 가졌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들어왔을 뿐이지,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에 들여놓고는 내 손에 쥐려고 할 때 그 간격을 메꿔주는 것이 행동규범인 거예요.
내 마음에 좋아요, 그러면 내 손에 쥐어야 되는데, 쥐려면 이렇게 행동하라, 쥐려면 일곱 가지 습관을 가져라, 쥐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쥐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쥐려면 첫 인상을 보고 5초 만에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전부 율법이에요, 전부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라, 하나님께 아부를 해야 되는데 아부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율법주의가 말하는 율법이나 다 똑같은 의미의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규례를 좋아하나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을 내 마음이 좋아해서 마음 안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규범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와 반대 되는 이렇게 규례를 싫어하고 지긋지긋해하면서 거부하는 사도바울의 입장에서는 새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의견덩어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그냥 내용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이십니다.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의견입니까? 내 삶에 대한 의견.
즉,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의견 속에 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견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경제문제의 답, 하나님의 의견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가정문제의 답, 하나님의 의견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사업문제 아니면 내 인생문제, 결혼문제, 자녀문제, 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행동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여기서부터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면도칼로 잘라내듯이 섬세하고도 명확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계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행동하면서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까?
내 죄를 보니까.
왜 죄가 생깁니까?
내 마음이 육체에 꽁꽁 묶여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앞의 11절에서는 그리스도 할례라고 했어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육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할례가 양피를 베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육체를 베어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때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고 나면, 이전에 육체에 묶여 살 때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들어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경우를 비교해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경우와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를 경우의 차이를 한 번 비교해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규범을 찾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빠져 들어가고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 십자가에 주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안기게 될 때,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좋다고 하는 돈을 마음에 집어넣고 생각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행동규범이 필요했잖아요, 앞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를 경우에는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좋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음 안으로 주어집니다.
행동규범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돈을 좋아하면 행동규범을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내 손에 쥐어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좋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마음에 직접 주어져버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만족하고 기쁘기 위한 행동이 낄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좋아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그걸 이루려면 행동규범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 행동할 틈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로 주어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아, 요거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게 믿음인 거예요, 요게.
근데 이 차이를 자꾸 망각해서 행동함으로써 복을 받고, 행동함으로써 기쁘게 되고, 행동함으로써 만족한 상태가 된다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면 아무 행동도 나오기 전에 이미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기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넣고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행동규범을 머릿속에 넣고 엄마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켜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내게 건강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겨서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가지고 완전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맛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사도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신비함, 이게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게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언제나 예수님 따름에 기도, 그리고 예수님 따름을 담은 말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생긴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서 주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의견,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세상문제와 관계없이 마음이 기뻐요.
세상문제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문제였는데, 대단한 문제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상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소원이 생기고 생각이 떠오르면 행동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산상수훈 같은 것 명령형의 말씀들은 다 거울로 보는 거예요, 거울.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돈이 잘 안 벌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벌려서 이 사업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서 그 결과 사업이 잘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잘 번 돈을 유무상통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느냐를 보세요.
그것까지 되면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주시는 것 같은데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지도 않고 전부 나를 위해서, 오는 번 돈으로 소타타 자동차를 샀어요, 내일 더 잘 벌려서 이제는 또 에쿠스를 삽니다, 모레는 더 잘 벌게 돼서 에쿠스 집어치우고 BMW 700 시리즈를 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돼지처럼 더 쓰고 더 크게 쓰고 더 많이 쓰고, 더 고급으로 계속 쓰고 있으면,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게 유무상통이고 율법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돈을 사기 당했어요, 내 돈을 사기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서 그 사람으로 인해 없어진 돈 때문에 슬프던 마음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쁘게 됐어요, 그때 원수를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돈 사기까지 쳐가면서 갖고 가도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진 게 없다는 게 보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다 좋다가도 그 원수만 생각하면 뿔이 나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명심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나 율법서, 명령형의 말씀들을 내가 직접 붙들고 그것을 행동하려고 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그러려는 자신을 잘 보시면 분명히 뭔가 하나님 이외 다른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음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의 구원이라든지 나 자신에 국한된 뭔가를 마음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규범과 규례를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되세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자면서 무법자도 아니고 착한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착한사람처럼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기의 행동을 대신해주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그렇게 거듭거듭 행동규범을 붙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떠한 행동규범의 부담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길이 열려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로 무한한 부담들을 주고 안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올바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